

# 평창올림픽 준비 '골든타임' 내년 국비 6조2천억 확보하라

도 원주~강릉 철도 등 50개 SOC 사업 총력전

도가 내년도 예산(국비)신청서 제출을 24일 앞두고 16일 '국비 확보 전면전'을 선포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2년 앞두고 되는 내년도 국비 확보 성과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도는 16일 오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와 김정삼 행정부지사, 김미영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2016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다음 달 10일까지 내년 예산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보고회를 계기로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 최문순 지사는 보고회에서 "부처 예산요구서가 오는 6월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며 "지금부터 한달 동안은 '2016년도 국비 확보 전면전'을 선포하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6조715억원보다 1,285억원 늘어난

경기장·진입도로 건설 비투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집중 레고랜드 진입교량도 주목

◇2016년도 국비확보대상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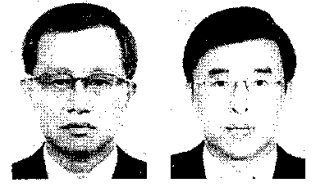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비 (단위: 억원)
춘천~속초 철도	50
여주~원주 철도	12
원주~강릉 철도	8,000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4,862
동해고속도로	1,005
제2영동고속도로	1,940
동계올림픽 경기장	2,137
동계올림픽 진입도로	1,973
동해·목호항 확충	617
속초항 확충	170
레고랜드 진입교량	200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264
오색집단지원시설지구	44

6조2,000억원이다. 이중 2조8,238억원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2017년까

지가 골든타임인 50개의 SOC사업이다. 오는 7월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유력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50억원, 여주~원주철도 사업비 12억원이 필요하다. 원주~강릉철도는 2017년 11월 개통을 위해 내년엔 8,000억원의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말 개통될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은 4,862억원, 동해고속도로는 1,005억원이 필요하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을 위해 1,94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동계올림픽 준비 사업비는 경기장 건설 2,137억원, 경기장진입도로 1,973억원 등 총 4,349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향만 부문은 동해·목호항 특성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 617억원, 속초항 확충 170억원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이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비 200억원,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8개) 264억원, 오색 케이블카와 직결되는 오색집단지원시설지구 정비 44억원 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규호기자 hokuy1@



◇최기호씨

◇허남석씨

## 최기호 국장·허남석 실장 지방부이사관 승진 발령

도는 최기호 건설교통국장과 허남석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을 각각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5명

이번 인사는 동계올림픽본부의 기능 강화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3단계 조직개편 등과 연계한 도 현안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신설되는 동계올림픽본부 시설관리과장에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풍부한 안덕수 회계과장을 임명했으며 회계과장에는 지승태 레고랜드추진단장을 임용했다. 또 정보산업과장에는 박재철 관광상품개발담당을 승진 임용했다. 이성현기자

## 인사

### ◇강원도

▼국장 직급 승진 △건설교통국장 최기호(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경제진흥국전략산업과강원테크노파크과장 허남석(경제진흥국전략산업과강원테크노파크과장)

▼과장 전보·승진 △기획조정실회계과장 지승태(레고랜드추진단장)△의회사무처경제건설전문위원 이성재(의회사무처경제건설전문위원직무대리)△동계올림픽본부빙상시설과장 신동호(동계올림픽본부시설2과장)△ "설상시설과장 이규은(동계올림픽본부시설1과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안덕수(기획조정실회계과장)△경제진흥국정보산업과장 " 박재철(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

▼담당급 전보·승진 △기획조정실규정발전과 김정운(보건복지여성국여성청소년가족과)△글

로별투자동상국기업지원과 한성규(경제진흥국규제개혁추진단행정자치부과장)△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 우기성(기획조정실기획관실지역발전위원회)△건설교통국토지과 박형재(서울본부)△동계올림픽본부시설관리과 전광표(동계올림픽본부시설1과)△기획조정실세정과 이근하(농업기술원총무과)△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최진섭(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기획조정실기획관실지역발전위원회과 권은진(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강원도문화재단과장)△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이수종(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 한철수(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 임성원(기획조정실규정발전과)△총무행정관실공공기관지방안전추진단과장 윤우영("세정과)△ " 2018동계조직위과장 윤근상(경제진흥국정보산업과)△ " 황병관(행정자치부)△보건복지여성

국여성청소년가족과 김남준(보건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김병일(경제진흥국전략산업과강원테크노파크과장)△보건복지여성국보건정책과 박원섭(보건복지여성국식품의약품과강릉의료원과장)△ " 식품의약품과강릉의료원과장 백춘희("보건정책과)△녹색국환경과 이종명(녹색국환경과원주지방환경청과장)△ " 수질보전과 이장현(총무행정관실한강수계관리위원회과장)△녹색국수질보전과원주지방환경청과장 이성윤(녹색국수질보전과)△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모윤성(")△녹색국환경과한강유역환경청과장 손진권(녹색국환경과)△환경해본부수산정책과 홍기봉(환경해본부수산정책과)△ " 해양항만과 양형모(양양군)△양양군 안중용(환경해본부해운항만과)△동계올림픽본부시설관리과 정홍섭(행정개발본부개발사업부)△ " 안광찬(도로관리

사업소태백지소장)△서울본부조관목(서울본부)△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박구용(총무행정관실2018동계조직위과장)△ " 김창흠(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장직무대리)△ " 최통선(행정개발본부민원지원부)△동계올림픽본부빙상시설과 이영호(동계올림픽본부시설2과)△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 " 보건연구부 허범영("환경연구원부)

▼조직개편 임용 △동계올림픽본부설상시설과 안태경(동계올림픽본부시설1과)△ " 박영일(")△ " 성기준(")△ " 권수안(") <17일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지원실장 유상현 △중양보훈병원 행정부원장 김종운 △중양보훈병원 운영실장 임세웅 △위탁병원관리단 권역본부장 이규원 △대전보훈요양원장 천명주 △건설사업단장 김우경

**최기호 국장·허남석 실장 부이사관 승진**

〈도 건설교통국〉 〈TP 행정지원실〉

**도 국·과장·담당급 인사**

강원도 최기호(59) 건설교통국장과 허남석(59)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도는 16일 최 국장과 허 실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국·과장, 담당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최 국장은 춘천농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도로교통과장, 건설발재국장, 건설추진단장 등

을 역임했다. 허 실장은 양구 출신으로 양구 성애상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으며 총무과장, 대변인을 지냈다.

과장급 인사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동계올림픽본부 시설관리과장에 안덕수 회계과장이 임명됐다.

또 회계과장에는 지승태 레고랜드추진단장이 자리를 옮겼으며, 정보산업과장에는 박재철 관광상품개발 담당이 승진 임용됐다. **백오인 ▶인사명단 23면**

**인사**

**도청**

◇부이사관 승진 =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허남석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과장급 전보 = △지승태 회계과장(레고랜드추진단장)△신동호 비상시설과장(시설2과장)△안덕수 시설관리과장(회계과장)△이성재 경제건설전문위원(의회사무처)△이규은 설상시설과장(시설1과장)△박재철 정보산업과장(관광마케팅과)

◇담당급 전보 = △김정운 균형발전과(여성청소년가족과)△한성규 기업지원과(규제개혁추진단)△우기성 관광마케팅과(기획관실)△박형재 토지과(서울본부)△전광표 시설관리과(시설1과)△이건하 세정과(농업기술원)△최진섭 경제정책과(조직위)△권은진 기획관실(문화예술과)△이수종 조직위(경제정책과)△한철수 조직위(조직위)△임성원 조직위(균형발전과)△윤우영 총무행정관실(세정과)△윤근상 조직위(정보산업과)△황병관 조직위(행정자치부)△김남준 여성청소년가족과(복지정책과)△김병일 조직위(전략산업과)△박원섭 보건정책과(식품의약과)△백춘희 식품의약과(보건정책과)△이종명 환경과(원주환경청)△이창현 수질보전과(총무행정관실)△이성을 원주환경청(수질보전과)△모운성 조직위(수질보전과)△손진권 한강유역환경청(환경과)△홍기봉 수산정책과(수산정책과)△양형모 해운항만과(양양군)△안중용 양양군(해운항만과)△정홍섭 시설관리과(개발사업부)△안광찬 시설관리과(도로관리사업소)△조관묵 서울본부(서울본부)△박구용 조직위(조직위)△김창흠

조직위(도로관리사업소)△최통선 조직위(민원지원부)△이영호 비상시설과(시설2과)△최승봉 환경연구부(보건연구부)△허범녕 보건연구부(환경연구부)△김대식 어업지원과(기업지원과)△임영빈 서울본부(총무행정관실)△배상요 고충처리위(어업지원과)△오흥수 관광마케팅과(예산과)△최병갑 체전기획과(기획관실)△유태희 조직위(대변인실)△박영석 조직위(총무행정관실)△이종배 농업기술원(감사관실)△김유진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강관규 정보산업과(감사관실)△서종억 축산과(축산과)△유양섭 수질보전과(수질보전과)△최창정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지역도시과)△김태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지역도시과)△남택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감사관실)△김응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인형석 조직위(정보산업과)△박연수 축산기술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윤경애 환경연구부(환경연구부)

△유상현 행정지원실장(건설사업단장) △김종운 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행정지원실장) △임세용 운영실장(사업지원실 구매관리부장) △이규원 위탁병원관리단 권역본부장(대전보훈요양원장) △천명주 대전보훈요양원장(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 △김우경 건설사업단장(중앙보훈병원 운영실장)

**6급 이하 kado.net**

**외환은행**

◇지점장 승진 = 이광순 강릉지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상현 행정지원실장(건설사업단장) △김종운 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행정지원실장) △임세용 운영실장(사업지원실 구매관리부장) △이규원 위탁병원관리단 권역본부장(대전보훈요양원장) △천명주 대전보훈요양원장(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 △김우경 건설사업단장(중앙보훈병원 운영실장)

도민을 생각하는 신문, 도민이 사랑하는 신문

주석 논설실장 **김상수** 편집국장 **김인호**

구독신청·배달	260-9500	244-7100
광고문의	260-9800	257-2592
출판상담	260-9400	243-7008
영월	373-7001	373-7003
평창	332-3388	333-5577
정선	562-0672	562-0674
철원	452-6411	452-6410
화천	441-9000	441-9005
양구	482-7500	481-7933
양양	461-7421	461-7422
고성	461-7421	681-6009
양양	672-7000	672-3931

▶ 구독료: 월13,000원 (1부 6000원)

26 창간 / 1992. 11. 24 등록번호 강원개

춘천자동차 배터리할인마트

033-243-4932  
010-2083-4933

춘천경찰서 옆

**정품 아닐시 50%환불**

모델	시중가	신품
AH80(승용차)	110,000	79,000
AH100(suv)	130,000	92,000
AH120(트럭8톤이상)	150,000	121,000
AH150(트럭8톤이상)	180,000	131,000

※ 대용 및 부가제 포함

**택배가능** 춘천자동차배터리할인마트

# “건설사 귀책사유 없는 工期 연장 추가비용 발주처가 부담” ‘간접비’ 지급 기준 만든다

발주기관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기연장 간접비 부담을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꼼꼼도 않던 정부가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추가비용이 자율조정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기재부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검토 “명확한 규정 만들어 갈등 최소화”

실제 공기연장 간접비 부담을 건디못한 건설사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1~6공구, 오리~수원 북선전철 6공구, 굴포천 방수로, 거금도 연도교, 전라선 전자선로 등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연이어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의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오지부동이었던 기재부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나 업체는 공기연장

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자율조정항목에 공기연장 간접비가 반영되면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단순히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변경과 같이 발주기관과 건설사가 아무런 갈등 없이 간접비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기존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토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간접비 지급 범위를 마련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급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토 일요일자 신문입니다

# 양양공항 관광단지 조성 ‘본궤도’

하반기부터 골프장·숙박시설·아웃렛 등 3176억 투자

총 3000억원 규모의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올 하반기 본궤도에 오른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휴양, 숙박, 쇼핑 시설 등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앞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서울러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교통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사전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양면 동호리 일대의 기존 골드비치 골프프리조트 시설에 244만9358㎡의 면적을 추가해 골프장 9홀과 400실의 숙박시설,

아웃렛,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이 들어선다. 조성사업에는 총 3176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중국 10개 도시와 양양~제주 간 전세기 취항에 들어갔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노선도 재운항하는 등 총 13개 국제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은 물론 양양국제공항이 동북아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대형 관광시설 투자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Q

건설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공사대금 지급 명령)하는 것에 대해 대처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A

1.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을 재차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분쟁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협회의 자문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서류 그리고 회계처리 사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건설 법률상담 전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